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1-2월호
2018년



눈 덮힌 샌디아산 정상
사진:이옥주

한인회소식

신년 인사

문상귀

뉴멕시코 한인회장

교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해동안 성원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 새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1월 10일 수요일에는 어버이회와 함께 떡국을 준비해서 교민 여러분들과 함께 신년하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셔서 새해를 밝은 얼굴로 맞이했으면 합니다. 지난해의 부족했던 점은 꾸짖어 주시고 더 나은 새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임원, 이사진들을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날은 특별히 칭찬 릴레이를 하고 서로가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교민분들의 신년 계획과 포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때까지는 없었던 행사를 준비해 보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광고

신년 하례식

1월 10일 수요일 11시 30분 한인회관
떡국을 나누고 덕담의 시간으로 새해를 열겠습니다.

내용 CONTENTS

한인회소식 | 신년인사 | 문상귀 : 1

칼럼 | 2018년 행복합시다 | 김기천 : 2

한국학교소식 | 한국학교소식 | 박영신 : 3

한인회소식 | 어버이회 소식 | 윤태자 : 4

지역사회소식 | 한국영화<신과 함께>산타페에서 상영 : 4

지역사회소식 | 지역사회 지난 소식 : 5-9

수필 | 원정 | 이정길 : 10

인터뷰 | 타마시 일본식당 탐방 : 11

생활상식 | 피싱 사기 예방 : 12

생활상식 | 행복한 미국생활 #16 (DACA/Dream Act) : 13

수필 | 혼밥 | 이명길 : 15

수필 | 대박넌 음악회 | 김준호 : 16

신앙간증 | 주님때문에 삽니다 | 김용일 : 17

광고 | 뉴멕시코주 한인교회 안내 : 19

광고 | 뉴멕시코주 한인업소 : 20-21

2018년 행복합시다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해가 풍성하시고, 순간순간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 더욱 쓰임을 받는 사람들, 기적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또한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해를 돌아켜보면 안팎으로 참으로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 일을 했던 교우들을 생각하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매일, 매주일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면 그동안 굳게 닫혀 있던 교회의 동쪽 문이 환하게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교회 주차장에 들어서면 요즘 같은 겨울에 밖에서 주차를 돕고 교인들의 안전을 지키는 분들이 서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이라고 여기는지 심지어는 수요일 저녁 추운 밤중에도 밖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지요. 절기마다 강단에 색깔이 변하고 절기를 알리는 배너가 새롭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지난주에는 다양한 행사를 하느라고 분주하게 지내다가 정리가 못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번주에 가보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주일마다 새롭게 준비된 주보와 한 주간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도록 도와주는 성경문제가 매주 새롭게 주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기적입니다. 더욱이 미국교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기적도 있지요. 매주일 예배 후에 새롭게 나오는 점심 식사입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조리부터 설거지 정리까지 깔끔하게 식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어떤 이들은 주일마다 오전 9시부터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며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목사인 제가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목사가 오기 전부터 교회에서 헌신, 봉사를 하는

이들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성가대, 여선교회, 남선교회, 영어 예배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장년부, 속회 등 각 부서가 지금까지 견재하게 성장하고 있지요. 나는 별로 관련한 것도 없는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기적이긴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 뒤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분들에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기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난해는 행복했었습니다.

지난달 12월 12일에는 베테랑공원에 갔지요. 매달 둘째 주 화요일마다 모이는 한국 참전용사모임에 참석하려고 갔습니다. 한국에서 발발한 6.25전쟁에 참전해서 고귀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젊음을 희생했던 이들을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요. 연말이기도 해서 이분들에게 드릴 선물을 두 박스 준비해서 찾아보았지요. 늘 환영해주는 이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분들의 모임은 주로 회원들 상황 점검과 업무처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뽑기 게임을 하곤 했지요. 업무처리는 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으로 누구를 어떻게 도와줄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간 선물도 기쁘게 받으시더니 결국에는 알버커키 남서쪽 어려운 초등학교에 보내자고 결의를 하였지요. 뽑기 게임은 참석자들이 5 불정도를 내놓고 번호를 뽑아서 당첨된 한 사람이 전부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뽑기에 당첨된 분은 당첨금 전부를 역시 알버커키 초등학교에 보내라고 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기도로 모임을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분들이십니다. 이분들로 인해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www.abqsushiandsake.com

Lunch
11:30-2:30 Mon-Sat

Dinner
5:00-9:30 Mon-Thur
5:00-10:00 Fri-Sat
12:30-8:00 Sunday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1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한국학교소식

안녕하세요.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 박영신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지나고 새로운 2018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전 학기 대비, 매 학기 전체 등록이 90% 이상을 유지하였고 열정 있는 교사들과 성인반 특강 및 아동반 방학 캠프,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안창호 일일 수업도 진행하며 열심히 달려왔지만 늘 마지막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기에 2018년에는 새 마음과 새 뜻으로 더 많은 일을 원활하게 이루어 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지난 한 해 한국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3명의 교사와 LA에서 진행하는 KOSSA 교사 학술 대회에 참석하여 열정 있는 강의를 통해 수업 지도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와 열정을 배울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선생님들의 사기충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정을 모아 여름방학에는 아동반을 위한 이순신 장군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치 축제를 위해 아동반과 성인반 모두 함께 한글로 만드는 '이름 콘테스트'를, 아동반 어린이들의 '꼭 두각시' 춤과 '아기돼지 삼 형제' 연극을 준비해서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특별히 동포재단과 독립기념관이 협력하여 만든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교재는 배급받았고 이 교재는 미주에 있는 100개 학교에 우선 배정되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과 겨울 방학 캠프를 진행하였고 특별히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일일 수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반의 경우, 교재 내용 자체가 쉽지 않아 선생님들과 자체적으로 교재를 추려서 편집하여 사



박영신
한국학교 교장

용하였고 아이들과 흥사단 깃발을 색종이로 채우고 함께 안창호 선생님께 편지를 써 보는 등의 단체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안창호 선생님의 일생을 나누어 각자 프로젝트 보드를 완성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많은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열정 있는 교사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중에 모여 기획을 하고 교재를 편집하고 만드는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신 교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사랑과 관심으로 한국학교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참석해 주시는 문상귀 회장님을 비롯한 한인회 임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모든 행사에 늘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시고 재정적으로도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시는 민명희 부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런 분들의 노고와 사랑으로 한국학교는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교민 여러분도 새 해에는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한국학교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어버이회소식

윤태자

뉴멕시코 한인회
수석부회장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해 가정 가정마다 화평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한해가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 건 비단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어버이회는 총 회비는 5,820불이 들어왔고 후원금은 1,125불이
들어 왔습니다. 일 년 52주 중 24주를 후원받았고 나머지 주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회관에
오셔서 어르신들이나 봉사자들이 대화 나누시고 식사하시고
운동이나 빙고 하시며 친목을 다지는 수요일에 보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해마다 조금씩 회비는 늘고
후원이나 기부금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나 지난해에도 한인회의
지원과 회원들의 회비, 후원과 기부금으로 풍성하게 채워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 드릴 것은 작년 한 해 회원 중 병고를
치르신 분이 몇 분 계셨으나 회복하셨거나 회복 중이신 것입니다.
새해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회관에서 뵈겠습니다.

지난 한 해 어버이회를 후원해주신 개인으로는 김길자, 김영신,
손말레, 문상귀, 윤태자, 정풍자, 차성희, 마이크 조, 송춘자,
고산식, 조은순, 현순덕, 박찬영, 이희정, 이명길, 민명희, 최진,
김태원, 김미경 씨고 단체로는 감리교회, 주님의 교회, 가톨릭
공동체, 코원, 김스 마켓, A-1 마켓, 한인회 이사진, 한인회
무용팀, sushi & sake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2018년 새해를
맞아 아리랑 마켓에서 떡국으로 어르신들을 대접하시겠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18년 한해도 서로가 돕고 나누며 한인들 속의 적은 수의
모임이지만 날로 번성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산타페에서 한국 영화 <신과 함께>상영



한국 영화 <신과 함께>가 산타페 Jean Cocteau Cinema(418
Montezuma Ave, Santa Fe, NM 87501, 505-466-5528)에서
오는 1월26일 (금) 저녁 6시부터 2시간 20분 상영한다. <신과
함께>는 <미녀는 괴로워>, <국가대표>를 감독한 김용화 감독의
작품으로 한국 영화 최초로 6년간의 제작 기간, 400억 원의
제작비를 들인 초대형 블록버스터로 대한민국 최고 웹툰 주호민
작가의 [신과 함께]를 원작으로 했다. 139분의 판타지, 드라마로
2018년 1월 1일 기준 9,456,356명의 누적 관람객, 예매율 1위로
흥행기록을 쓰고 있다. 8.76의 관람객 평점을 받고 있다.

하정우, 차태현, 주지훈, 김향기, 이정재, 김해숙, 이경영, 오달수,
도경수 등 역대 최고 캐스팅과 대한민국 영화 사상 최초로 2
부작을 동시에 제작 완성해 영화 제작부터 끊임없이 뜨거운
화제와 관심을 끈 기대작이다.

<신과 함께>는 인간의 죽음 이후 저승에 온 망자가 49일 동안
7개의 지옥에서 재판을 받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로 한국적인
세계관을 반영한 신선하고 감동적인 드라마와 배우들의 호연,
저승 세계의 비주얼로 전 세계 영화 관계자들을 사로잡아 전
세계 103개국 선판매라는 놀라운 기록도 달성했다.

웹사이트: www.jeancocteaucinema.com ■

HUONG THAO

베트남 식당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Beer & Wine

Tues-Sat 11:00am-9:00pm

Sun 11:00am-8:30pm

1018 B Juan Tabo NE

Albuq., NM 87112 (505)292-8222



Mi Kyong Kim

Mortgage Banker
NMLS #512561



BANK OF ALBUQUERQUE
MORTGAGE

3900 Vassar Dr NE
Albuquerque, New Mexico 87107
www.bankofalbuquerque.com/mikyongkim
E-Mail mkim@bokf.com
Direct 505.855.0586
Mobile 505.379.2944
Fax 505.855.7301



김미경

주택융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뉴멕시코 지역사회 지난소식 (10월-11월)

알버커키 가톨릭 공동체 소식

가톨릭 공동체는 성탄절을 앞둔 12월 17일 주일 저녁에 콜로라도 스프링스 본당 최경식 야고보 신부님을 모시고 고백성사를 보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다.

18일 월요일 5시에는 새로 오신 오안나 자매님 집축성과 가정미사를 드린 후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다.

가톨릭 공동체는 다음 2년 임기를 맡을 임원진을 아래와 같이 구성했다.

사목회장: 민 명희 스텔라

총무: 이성희 사도요한

재무: 장경림 루피나

전례: 정영희 베로니카, 유 승윤 엘리자벳

알버커키 가톨릭 공동체의 홍보를 위한 페이스북도 개설했다.

주소는 <https://www.facebook.com/akccnm> 이다.

또한 1월 6일에 있을 어년시에이션(Annunciation) 성당(2621 Vermont Street NE Albuquerque, NM 87110)이 주관하는 Christmas Around World 행사에 한국을 대표하여 알버커키 가톨릭 공동체가 참석하여 한국의 가톨릭 성지중 하나인 감곡성지를 소개하며 한국의 크리스마스를 소개하기로 했다. ■



클로비스 한인교회 소식



샬롬~ 연말과 연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기원합니다. 클로비스는 알버커키에서 동남쪽으로 3시간 반 거리에 있는 인구 4만 명 정도에 한인은 40명도 채 되지 않은 작은 도시입니다. 우리 클로비스 한인교회는 28년차의 역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지역사회의 전도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볼리비아 선교사 1인을 후원했으며 2018년에는 LA지역의 개척교회 한 곳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 12월 17일에 공동의회를 열어 권사 1인을 선출하였습니다. 김 경애 집사님(58세)이 권사로 선출되어 2018년 4월 15일(주) 오전 11:45 (교회 창립기념주일) 예배에 임직식을 겸하여 갖을 예정입니다.

2) 12월 25일 성탄절에는 오전 11시에 성탄감사 예배를 드렸고

3) 12월 31일 오후 7시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4)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는 신년 금식기도의 기간을 갖습니다.

알버커키 지역의 교회들과 뉴멕시코 주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클로비스에서 이 성희 목사 드립니다. ■



Yummi House

雅緻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 (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 삼선짬뽕

해물탕면 / 다섯가지 냉채

판풍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탕수우육 / 양장피 잡채



뉴멕시코 지역사회 지난소식 (11월-12월)

한인회 한인의 밤 행사

뉴멕시코 한인회는 12월 17일 저녁 6시 이찌반 식당에서 한인의 밤을 가졌다. 1부는 박찬영 사무총장의 사회로 트럼프 대통령 자원봉사상 시상식을 하고 2부는 이옥주 씨의 사회로 축하연을 열었다.

1부 트럼프 대통령 자원봉사상 시상식

김경숙 이사장은 시상식 개최사를 통해 1년동안 수고한 임원들을 응원하고 자원봉사상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또한, 한인의 밤에 참여한 교민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했다. 감리교회 담임목사인 김기천 목사는 교민들이 한 자리에 모인 복된 시간을 축복하고 성탄 시즌에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을 경험하길 기도했다.

국민의례에 이어 문상귀 한인회장이 “한인회의 발전과 교민들을 위해 도움되는 일을 하려고 한다. 지속적인 응원을 바라며 오늘 참여한 모든 분을 환영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했다. 이어서 이기철 총영사의 축사를 김경숙 이사장이 대독했다. 총영사는 “지역동포들과의 화합, 발전을 위해 한인회 역사상 최초로 개최하는 이번 한인의 밤에서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을 받으시는 일곱 분께 축하드리고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 뉴멕시코주 한인 사회가 서로 도와가며 주류 사회와도 지속해서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번 시상식 시상을 위해 샌디에이고에서 뉴멕시코를 방문한 미주한인지도자 협의회(KALA) 조광세 회장이 격려사를 했다. 조광세



정신을 모범적으로 보여 주신 것과 여러 문제 가운데서도 동포들이 하나로 협력하는 일을 도왔다. 미국의 제일 큰 힘인 타인을 위한 자원봉사를 보여준 여러분들이 매우 자랑스럽다. 그 헌신으로 인해 미국은 대대로 자유와 기회의 땅으로 남을 것이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낭독했다.

트럼프 대통령 시상자는 김철, 박광종, 박순삼, 이경화, 이덕녀, 이은주, 정지에 7 명이고 이날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김철 씨를 제외한 6명이 수상했다. 김철 씨는 초대 한인 상공회의소 창립에 공헌했고 한인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박광종 씨는 현 코원 회장으로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여러 봉사를 통해 한인의 위상을 높인 공적을 인정받았다. 박순삼 씨는 뉴멕시코 한인회 초대 회장으로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경화 씨는 2, 3대 한인회장을 역임했고 한인회 소식지인 ‘광야의 소리’ 편집장으로 수고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덕녀 씨는 한인회 어버이회에 10여년간 맡없이 꾸준히 봉사해 온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은주 씨는 현 한국학교 고문, 아리조나 타임스 기자로 일하면서 한인회 소식을 널리 알리는 일과 한인회, 한국학교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정지에 씨는 현 한국학교 교감으로 10여년간 교사로서 한국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문상귀 한인회장은 현 한인회장과 미주한인지도자 협의회 뉴멕시코 협회장으로서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특별상을 받았다.

이어 박찬영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보내온 신년 카드를 교민들에게 낭독했다.

시상식을 마친 후 윤성열 침례교회 목사가 “한 해 동안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모인 분들과 특별히 한인사회의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잊지 않는 한인회가 되기를” 기도했다. 기도 후 한식과 일식 뷔페식으로 차린 저녁을 함께했다.



회장은 “이민선조들은 100여년 전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첫 이민 생활을 시작해 미 전역에 한인동포의 발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여러 방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 뉴멕시코 한인회도 분열없는 발전으로 조국의 통일을 리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수고한 한인회장과 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참석해 주신 동포들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 결실 이루시고 새해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한다”고 했다. 시상식에 앞서 한승우 전도사가 ‘지역 사회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한다. 미국인으로서의 훌륭한



2부 한인의 밤 노래자랑 대회

한인의 밤 2부 한인 노래자랑 대회는 전 인기 개그우먼 이옥주 씨와 이능훈 씨가 진행을 맡았다.

노래자랑 심사위원은 KALA 조광세 회장, 임정란 경기민요 무형문화재, 이경화 장로, 정풍자 전 코원 회장이 맡았다.

행사를 위한 후원은 이찌방, A1마켓에서 40여점 물품, 차성희 이사와 김영신 전 한인회장, 박찬영 사무총장 후원금, 김경숙 이사장의 타올 세트, 사무라이 식당 기프트 카드, 흥타호 베트남 식당 기프트 카드, 김스 마켓에서 쌀 10포와 라면 5박스, KELLY LIQOUR 김철, 정종문 13점 상품, 경기민요 무형문화재 임정란 씨 경품대상 상품 한국행 왕복 항공권, 문상귀 한인회장의 경품 1등 상품 55인치 텔레비전, 노래자랑 대상 상품 아이패드 박순삼 초대한인회장의 후원이다.

한인 노래자랑 참가자는 박영교, 이덕향, 위점득, 박찬영, 박광중, 박영신, 임낸시, 조은순, 마이크 조, 장상순, 윤성열, 최성원, 이동미 부부, 한지는 양 모두 14명이 참가했다.

노래자랑 중간중간 게임과 지역 목회자, 단체장들의 경품 추첨으로 분위기를 달구는 등 사회자의 재치있는 진행으로 교민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노래자랑 수상자 발표는 이경화 장로가 진행했다. 한인 노래자랑 대상은 임낸시 씨로 아이패드를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윤성열, 박영신 씨, 장려상에 박영교, 인기상은 춤과 노래로 많은 박수를 받

은 박광중 씨가 차지했다.

조광세 회장은 심사 총평을 통해 “송년회가 너무 감격스럽다. 어른부터 어린 학생, 가족까지 대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감동적인 모습이었다”고 극찬했다.

지난 추석 노래자랑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차성희 이사가 노래자랑 대회를 마무리 하는 특별 가수로 한 곡을 선사했다. 경품 추첨 결과 대상에 경기민요 무형문화재 임정란 씨가 후원하고 추첨해 사무라이 박찬영 사무총장의 부인인 김숙희 씨가 한국행 항공권에 당첨됐다. 문상귀 회장이 후원한 55인치 텔레비전은 신기춘 어버이회 회원이 당첨됐다. 한인회의 밤은 100 명 이상의 교민이 모여 한 해를 보내는 시간을 마무리했다.

행사를 치른 문상귀 회장은 “행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임원, 이사회 분들,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고 함께 즐거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하고 사회를 맡아주신 두 분, 이찌방 사장님과 숨어서 봉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다. 일 년을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주시고 다음 해에는 더욱 알차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했다. ■

〈전재/발췌: 아리조나 타임즈〉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http://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 87505
Tel: 505-988-4476

Lunch

11:30-2:30 Mon-Sat

Dinner

4:30-9:30 Mon-Thur

11:30-10:00 Fri, Sat

4:00-9:00 Sun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뉴멕시코 지역사회 지난소식 (11월-12월)

산타페 한인교회 뜻 깊은 성탄절 가져

산타페 한인교회는 2017년 연말에 뜻깊은 시간들을 가졌다. 작년 고 노강국 목사님의 소천 후 많이 침체되어 있었지만 새로 부임한 담임목사님과 교우들이 힘을 합하여 교회가 다시 부흥되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에 걸친 부흥회와 교회 창립기념행사, 성탄행사를 함께 준비하며 말씀으로 더욱 힘을 얻었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를 위한 많은 인근 목회자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새로 산타페 여성중창단이 발족하였으며, 지난주 제직회에서는 멕시코 티후아나 빈민가에 산불로 보금자리를 잃은 두 성도의 가정에 선물로 작은 지원비를 보내기로 결정하였고, 에콰도르 선교지에도 성탄 선물을 보내게 되었으며, 산타페에 있는 St. John's College 한국학생 10여명을 초청, 한인학생 위로회를 가져 특히 올해 산타페 교회에 뜻깊은 성탄절이 되었다. 담임인 김석훈 목사는 주안에서 뉴멕시코 성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다. ■

로스 알라모스 한인 송년모임 가져



지난 12월 9일 저녁 6:30에 Trinity on the Hill Episcopal Church의 장소를 빌려서 로스알라모스에 있는 한인들의

송년모임이 있었다.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스템으로 있는 김승준 박사가정이 담당하여 연구소직원들과 산타페 한인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 한해를 또 보내는 것을 아쉬워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 한번은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며, 함께 준비한 게임과 서로의 소개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로스알라모스 한인 송년 모임은 매년 열리며 내년에는 임정호 박사 가정이 행사를 담당하게 된다. ■



The Garage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앨버커키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 (505)352-5152

마이르 조

근무시간: M-F 7:00am-6:00pm (토, 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뉴멕시코 지역사회 지난소식 (11월-12월)

지역주민을 위한 겨울음악회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는 지난 12월 10일 오후 6시 교회 본당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겨울 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의 첫 순서는 10명의 어린이로 구성된 핸드벨 연주단의 작은 별, 크리스마스캐럴 메들리로 시작했다. 합창순서로 제1부에서 성가곡 3곡을 불렀다. 음악회의 주제곡이기도 한 '은혜의 강물따라(이지영곡)'를 첫 곡으로 하고 이어 Don Besig작곡의 '그의 빛 안에 살면', 조성은 작곡의 '은혜 아니면'을 불렀다. 이어 소프라노 독창으로 박광중 씨가 'Nella Fantasia', 'Time to say Goodbye' 두 곡을 선사했다. 2부 합창은 한국노래 3곡: '고향의 노래(이수인)', '사공의 그리움(홍난파)'과 동요 '섬집아기(이흥렬)'를 불렀다. 남성 사중창으로 이성빈, 이철수, 이태길, 마이크조 네 분이 '냉면', '향수(김희갑)'를 불렀다. 3부 합창 순서에서는 크리스마스 칸타타로 Joseph M. Martin의 'Canticles in Candlelight'중에서 5곡을 연주했다.

음악회를 마친후에는 친교실에서 여선교회회원들이 준비한 음식으로 100여명의 손님을 정성껏 대접했다.

겨울의 길목에서 열린 겨울 음악회는 은혜로운 가운데 지역 주민과 함께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자리가 됐다. 주최측에서는 참석해주신 지역 주민과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며 또한 행사를 위해 주차장에서, 또는 오디오룸, 어린이 베비실룸에서, 또는 친교실에서 수고해 주신 여러 교우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한다. 핸드벨연주를 준비하신 이혜리, 김소윤선생님, 피아노 반주의 박영신 집사, 지휘자이신 이태길 원로목사님의 수고에 큰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날 공연한 합창단은 27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었었는데 그 명단은 아래와 같다.

소프라노: 김소윤, 김수영, 김숙경, 김은숙, 박광중, 박선희, 서순분, 심강희, 이혜리, 최린 (10명)

엘토: 김미경, 김성숙, 성은미, 조혜란, 안은영, 오영, 이가영, 이동미, 이옥주(9명)

테너: 김기천, 이성빈, 이철수(3명) 베이스:김준호, 마이크조, 이경화, 이명길, 이석종(5명)

이날 공연한 음악은 교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다시 들어 볼 수 있다. 페이스북주소: www.facebook.com/kumcabq/

유튜브 주소: www.youtube.com/kumcabq/ ■



원정(園丁)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봄 들어 이곳 날씨답지 않게 가끔씩 비가 내린다. 오래 전부터 ‘황진 지대’로 알려져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려는 듯, 봄이면 바람만 세차게 불어 시야를 뿌연게 흐려놓고는 하는 곳이다. 많은 양도 아닌 비에 뒷마당의 나무와 화초들이 제 세상을 만난듯 활기를 띤다. 3년 전이던가, 멕시코 앵초가 담장 가까이에 자리잡더니 점차 주위로 번져 홍자색 꽃밭을 이루었다.

쉴새없이 움직이는 것이 실재라 했던가. 뒷마당의 나무들이 시간이 갈수록 자라면서 잎도 그만큼 더 많이 떨어뜨린다. 서재 앞의 일본단풍 두 그루가 북창을 가려 하늘이 안 보인다. 자식들 곁에서 노후를 보낼 작정으로 앨버커키로 옮겨와 살고 있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집. 뒤뜰은 맨발로 걸어도닐 수 있게 붉은 벽돌을 깔아놓은 곳 말고는 자갈밭과 잔디밭이 반반이다.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넓은 비닐 천을 깔고 흙으로 덮은 다음 그 위에 다시 잔돌을 깔아놓은 자갈밭은, 건조지 조경법의 산물이다.

캐나다 단풍나무 두 그루씩이 마치 옆집들과의 경계를 표시하듯 우뚝 솟아 있다. 자갈밭은 코튼우드, 산사나무, 목련, 레드 팁 폰티니아, 로즈메리, 주니퍼 등의 차지다. 첫 해에는 거기에 장미 서너 그루를 심었다. 이듬 해에는 잔디를 걷어내고 과일나무 세 그루와 장미 여섯 그루를 심고, ‘앨버커키 저녁놀’이라는 이름의 자갈을 깔았다. 쓰지 않는 담장 곁의 텍크를 걷어낸 자리에 화단을 만들었다.

이른봄이면, 가을에 시작하여 겨우내 떨어진 낙엽부터 걷어낸다. 반바지와 긴소매를 걸치고 모자를 쓴 다음 전정 가위까지 들고 나서면, 아내는 내가 정원사가 다 되었다며 따라 나선다. 나무를 살피 죽은 가지들을 잘라내면서 모양도 잡아준다. 스프링클러를 확인하는 일은 필수 과목이다. 아내가 여러 가지 과일 껍질이며 상하거나 먹을 수 없는 채소 부스러기를 흙과 섞어서, 한 해 동안 정성껏 만든 퇴비를 분갈이하듯 골고루 나누어준다.

저희 스스로 찾아든 앵초들은, 겨울에는 죽은듯 없어졌다가도 봄이면 무성하게 자라 줄기가 15센티미터에 이른다. 3센티미터 안팎의 좁은 잎이 가느다란 줄기에 붙어있고, 꽃망울은 어린 고추와 흡사하다. 가운데의 노란 꽃술을 다섯 개의 꽃잎이 컵 모양으로 둘러싼다. 흰바탕에 나뭇가지 모양의 자색 무늬를 가진 꽃잎의 가장자리는 홍자색이다. 심지어 앉았는데 찾아와, 해마다 매마른 자갈밭에서 장관을 연출하는 앵초를 보면 한없이 고마워진다.

화단에는 어릴 적 시골집에서 보던 꽃들을 심었다. 크고 납작한 새빨간 접시꽃이 여름 한 철 눈을 즐겁게 해준다. 여러해살이풀이라 추운 겨울을 이기고, 기온이 올라가는 늦봄에 다시 새싹이 돋아 사람의 키만큼 자란다. 산책길의 나팔꽃이 볼 때마다 마음을 사로잡기에 씨를 얻어다가 뿌렸다. 어릴 적에

보던 나팔꽃과는 색조가 아주 달라 가운데만 핑크빛이고 꽃잎은 온통 진보라빛이다. 이른 아침에 싱싱한 나팔꽃을 보면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우러난다.

뒷마당을 가꾸다보면 어느 사이 내가 시골집으로 가고 있는 한다. 종 모양의 호박꽃이 눈에 어른거린다. 한여름 초가 지붕 위에 피던 흰 박꽃도 보고 싶어진다. 한없이 청순한 박꽃이 지고나면 둥근 열매들이 지붕을 장식한다. 커다랗고 잘 영근 박은 바가지를 만들어 사용한다. 덜 영근 박은 타서 삶아, 씨 부분은 버리고 살만 곱게 내 된장과 식초로 무친다. 짭잘하면서 시큼하던 그 맛을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올까. 고추 마늘 깨는 텃밭에 심고, 파 상추 솔 쑥갓 아욱 등 여남은 가지 야채는 뒤란에 심어 먹었다. 야채들도 저마다 꽃을 피운다. 이곳 앨버커키에서는 퇴비에 들어있던 호박씨가 가끔 싹이 터 덩굴져 번은 다음, 꽃까지 피어나를 즐겁게 한다.

우리의 삶에서 자연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한 가지도 없다. 자연의 변화에 맞추어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닌가? 자연의 섭리에서 인내와 겸손을 배운다.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마음의 고통과 상처는,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에서도 위안을 받아 치유될 수 있다. 나는 흙 속에서 자랐다. 그리고는 줄곧 번잡한 도시에서 일생을 보냈다. 퇴직하고 찾아온 곳이 자연과 많이 접하며 살 수 있는 곳이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가끔씩 흙도 만진다. 배워두면 쓸 날도 있을 거라며, 지게질이나 쟁기질 빼고는 다 가르치려고 드시던 선친의 마음을 이제야 좀 알 것도 같다. 뒷마당 가꾸기를 심어 년이나 하고 있지만, 나는 게을러서 번번이 때를 놓치는 서투른 원정(園丁)이다. ■



업소탐방

타마시 일본식당 탐방

앨버커키에서 최근에 이르러 가장 식당이 많이 생기고 있는 지역을 꼽으라고 한다면 앨버커키 북쪽에 있는 파세오 델 놀테 (Paseo del Norte) 길의 북쪽, 와요밍(Wyoming)과 산 페드로 (San Pedro) 길 사이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지역의 식당 비즈니스가 계속 성장해서 이제는 약 40개의 식당이 들어선 상황으로 발전했다. 식당은 늘어나고 있었지만, 아직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없던 차에 세 젊은 야망에 찬 한인이 동업으로 일본식당을 작년 11월 1일 이곳 식당이 가장 많이 모인 파세오 델 놀테와 산페드로에서 동북부 지역, 달갈노른자 같은 곳에서 개업하게 됐다. 광야의 소리 기자는 이 식당을 탐방하여 오너 (Owner)이면서 요리사, 스시맨으로 일하고 계신 이상섭(Teddy Lee) 씨를 만나 인터뷰를 했다. 아래에 인터뷰 일문일답을 소개한다.

(1) 식당 경영은 세분의 동업으로 알고 있는데 세분 오너(Owner)의 이름은?

최규호(Kyler Choi), 이상협 (Perry Lee), 이상섭(Teddy Lee) 입니다.

최규호(Kyler) 씨는 저 (Teddy)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으로 오래전부터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최 씨는 앨버커키에서 쿼터(Quarter) 레스토랑(와요밍/멍저메리에 위치)을 운영하는 식당 비즈니스 베틀랑인데 새롭게 일본 스시식당도 겸해서 해보려는 계획을 하고 있어서 캘리포니아에서 스시식당에서 일해온 저에게 함께 동업할 것을 권유했고 저

역시 같은 뜻이 있어서 식당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이상협(Perry) 씨는 저의 쌍둥이 형제 형님이 됩니다.

(2) 식당 이름을 타마시(Tamashi)라고 정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요?

일본인은 식당 이름을 지을 때 본인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식당 이름을 더욱 깊은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 정하려고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손님에게 감동을 주는 음식을 서비스하자는 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입맛에 맞는 음식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영혼(Soul)에 감동을 주는 음식을 만들자는 의지를 혼 (魂)이란 하나의 글자에 담기로 했습니다. 혼이 곧 일본어로 타마시라고 하는 데 악센트도 좋고 미국인들이 발음하기도 좋아서 이를 택한 것입니다.

(3) 타마시 식당의 위치를 잘 잡은 것 같은데 이곳에 자리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사실 이 지역은 임대료나 땅값이 비싼 지역이어서 우리가

<12페이지로 계속>



Japanese Kitchen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 정식 (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
모듬정식(벤토), 해물우동, 튀김 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공치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 야끼전문, 고기종류와 해물 외 다수

www.japanesekitchen.com
Phone: (505)884-8937, (505)872-1166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Japanese Kitchen
Sushi & Japanese Cuisine

6511 Americas Parkway NE
Albuquerque NM 87110

Phone: 872-1166
Fax: 884-8938
www.japanesekitchen.com

<타마시 일본식당 탐방> 계속

계획한 Budget을 초과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당이 많이 밀집된 곳이 경쟁은 심하겠으나 손님을 많이 모실 기회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곳을 택했습니다. 건물이 새로 짓고 있는 중이어서 건축과 동시 우리의 아이디어에 맞추어 내부 디자인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4) 타마시 식당의 특징이나 장점은 뭐라고 보나요?

첫째로 우리 식당의 사시미의 맛과 신선도는 어느 식당에 비교해도 우월하다고 봅니다. 특히 사시미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매주 2회 싱싱한 생선을 Delivery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 3회까지 공급받기도 합니다. 많은 스시 식당에서 주 일회의 공급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신선도 유지를 위해 타마시 식당은 더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시에서 중요한 것은 가니싱(Garnishing), 즉 스시와 곁들이는 장식, 데코레이션입니다. 어떤 스시요리를 주문하시든지 저희 식당에서는 정성껏 가니싱을 해서 하나의 스시 작품을 손님께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는 퓨전(Fusion) 스타일의 사시미 요리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캘리포니아를 왕래하면서 퓨전 스타일의 사시미를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로 라스베이거스나 뉴욕 같은 곳에 있는 고급일식 식당에서나 맛볼 수 있는 고급 퓨전 스타일의 사시미 요리를 우리 식당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드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5) 이 지역 한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앨버커키는 한인이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왔는데 의외로 적지 않은 한인들이 찾아오시고 또 격려도 해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인들께서 저의 식당을 찾아주시면 언제든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맛있고 즐기실 수 있는 음식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인터뷰 내용이다. 타마시 식당의 홈페이지 주소는 tamashiabq.com 이며 페이스북(www.facebook.com/Tamashi-1543117645785267/)에도 올려져 있다. Yelp검색 사이트에서도 쉽게 약도를 찾아낼 수 도 있다.(www.yelp.com/map/tamashi-japanese-restaurant-albuquerque). 홈페이지에서 식당 메뉴를 보면 약 100가지가 넘는 음식이 메뉴에 올려져 있다. 그중에서 Sushi & Sashimi에 속한 메뉴에 22가지, Maki 에 10가지, Rolls 이 24가지, Teishoku & Chef's Inspiration에 13가지, Udon & Tempura 에 6가지 음식 메뉴가 제시되어 있어 메뉴의 풍성함과 다양성을 볼 수 있다. 새해에는 더 새로운 메뉴가 추가 된다니 더욱 기대가 된다.

식당 주소: Tamashi Japanese Restaurant, 6400 Holly Ave NE Suite G, Albuquerque, NM 87113 전화: 505-717-2457

웹사이트: www.tamashiabq.com ■

피싱(Phishing) 사기 예방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가 유행하다 보니 피싱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 졌다. 피싱(phishing)은 전자우편 또는 메시지를 사용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체가 보낸 메시지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비밀번호 및 신용카드정보와 같이 기밀을 요하는 정보를 부정하게 얻으려는 수법의 한가지이다. '피싱'(phishing)이란 용어는 fishing(낚시)에서 유래하였으며 private data(개인정보)와 fishing의 합성어이다. 여러가지 미끼들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금융 정보와 패스워드를 '낚는'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최근에 와서 특히 노년층을 겨냥한 사기꾼의 피싱이 많아지고 있어서 연세드신 분들은 각별히 사기꾼의 책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들의 술법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최근의 AARP 잡지에 소개된 기사를 인용해서 사기꾼이 사칭하는 유형에 따라 분류해서 사기꾼이 이메일로 접근하는 피싱 예문을 몇개 소개한다.

(1) 유틸리티 회사 (The Utility Company) "We will be shutting off your electricity in 24 hours if you don't pay the past-due amount on your bill immediately." <전기세를 지난 몇달동안 내지 않고 밀려 있습니다. 밀린 전기세를 24시간 이내에 내지 않으면 전기를 끊겠습니다.>

((2) 국세청(The Internal Revenue Service) "Hi, I am calling from the IRS. You owe taxes. If you do not settle this situation immediately, you will be at great risk of large fines." <세금 미납하신것 즉시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리 안하시면 많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3)은행 "There's a data problem with your checking account. Please verify this information so we can confirm things and fix the error" <님의 수표계좌에 데이터 문제가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보내드리는 이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나 국세청, 우편국, 또는 법원같은 기관에서는 절대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위에서 본 것 같은 문의나 통보 또는 개인 정보를 전화나 E-mail로 묻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기 피싱에 대비하는것이 바람직 하다. ■

Acupuncture & Herbs Pain Clinic
Holistic & Alternative Medic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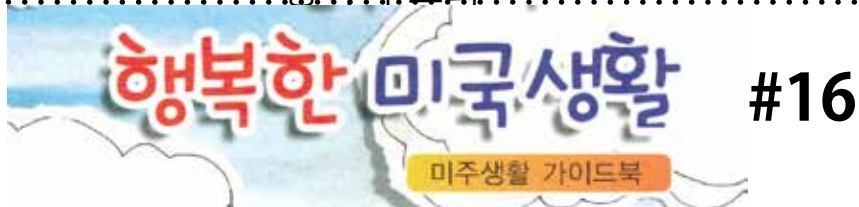


장상순 한의원
Dr. Sangsoo Chang
DOM, DSOM, Dipl OM, Dipl Ch, Lac

보험회사 Authorized Providers:
Cigna, Presbyterian, Multiplan, Optum,
United healthcare, New mexico health
connection, Out of net work, Molina.

2617 Juan Tabo NE #B
Albuquerque
New Mexico 87112
www.drchang505.com

505-255-0878
505-710-7504
sangsoonc@gmail.com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출판한 '견우와 직녀의 행복한 미국생활(부제:미주 생활 가이드북)'은 재미 동포에게 필요한 이민, 교육, 의료, 연금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본지는 연속 시리즈로 가이드북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4년 일리노이주에서 출판된 자료임으로 2018년 뉴멕시코에서는 맞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편집부)

3-2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DACA/Dream Act)



준향의 아들인 놀부는 시카고 공립학교에 다니는 졸업반 학생이다. 그는 10년 전에 엄마를 따라 미국에온 후 쭉 시카고에서 살아왔다. 몇 해 전 어머니는 새아버지를 만나 결혼을 하셨고 새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학교에 다녀오면 항상 동생 흥부를 돌보는 일은 놀부의 몫이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바쁘셨기 때문에 방과 후 학습 지도 한번 해주시지 못했지만 두 형제 모두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여 학교에서는 우등생이다. 놀부는 지난 가을에 본 SAT 시험에도 좋은 점수를 받아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비롯한 미국의 상위권 대학에 입학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놀부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의사가 되는 꿈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위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놀부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었고, 그래서 암 전문의가 되어 자신과 같이 암으로 가족을 잃는 일을 막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행복한 대학 생활을 꿈꿀때면 항상 놀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한가지 늘 놀부의 마음을 무겁게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놀부가 서류 미비 신분이었다는 것이였고, 그래서 대학 입학 신청서에 신분에 관련된 질문이 나올때마다 다시 한번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하루는 학교 친구인 길동을 만나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하게 되었다.

놀부: 나 지난주에 대학 입학 원서 작성했어.

길동: 벌써? 하긴, 넌 공부를 잘하니 오라는 곳도 많을거야.

놀부: 그런데, 내가 영주권이 없어서 좀 걱정이야, 우리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라서, 아무래도 장학금을 많이 주는 학교를 가야할텐데, 영주권만 있으면 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훨씬 많을텐데 말야.

길동: 그렇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정부 장학금을 비롯해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참, 어렸을 때 우리랑 같이 어울렸던 걱정이 형 기억나지? 그 형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작년에 주립대에 입학했고 정부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닌다더라.

놀부: 정말? 내가 알기론 그 형도 서류미비자인데...어떻게 받았지?

길동: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을 해서 가능했대.

놀부: 청소년 추방유예? 그게 뭘데?

길동: 나도 잘은 모르는데, 미국에 어렸을 때 온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라고 들었어. 운전면허증과 사회보장 번호도 신청할 수 있다던데?

놀부: 그런 게 있었어? 너 걱정이 형 연락처있니?

길동: 그래, 여기있어. 나도 이따가 한번 연락해 볼게.

놀부: 고마워. 나도 이제 희망이 생기네.

놀부에 얼굴에 큰 미소가 퍼져갔다

전문가의 한마디

DACA / Dream Act

청소년 추방 유예 또는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

2012년 6월 15일에 국토안보부 장관은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왔으며 몇몇 주요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2년 기간 (갱신 조건)

의 추방 유예 조치 고려를 할 수 있으며 이어서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1.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 미만이었으며,
2. 16회 생일에 이르기 전에 미국으로 왔으며,
3. 2007년 6월 15일 부터 현재까지 계속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4. 2012년 6월 15일에 그리고 미국이민국에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을 할 당시에 실제로 미국 내에 있었으며,
5.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검사 없이 입국하였거나 합법적인 이민 지위가 2012년 6월 15일 현재 만료되었으며,
6. 현재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였거나 고등학교로 부터 수료증을 받았거나 종합교육개발 (GED) 증서를 받았거나 미국 해안경비대나 군대의 명예 제대 재향군인이며, 그리고
7. 중죄, 중대한 경범죄, 3회 이상의 기타 경범죄 판결을 받지 않았으며 달리 국가 안보나 치안에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

신청을 위해서는 Form I-821D, I-765 및 I-765WS 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I-821D 양식의 경우 신청료가 없지만, 취업 허가 신청을 위해 요구되는 I-765 양식 (I-765WS) 신청료 \$380 과 생체인식 서비스 수수료 \$85, 도합 \$465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예 조치 신청과 함께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81년 6월 15일 이후에 태어났으며,
- 이전에 미국에 도착하였으며,
- 6월 15일 부터 현재까지 계속 미국 내에 거주하였으며,
- 6월 15일에 미국 내에 있었으며
- 6월 15일 이전에 검사없이 입국하였거나 합법적인 이민 지위가 2012년 6월 15일 현재 만료되었으며,
-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수료증을 받았거나, 종합교육 개발 (GED)증서를 받았거나 또는 미국 해안 경비대나 군대를 명예 제대한 재향군인이며, 그리고
- 절차를 받은 적이 없거나 요청 전에 케이스가 종결된 경우 제출 당시에 최소한 15세이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추방 절차를 겪은 적이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최종 명령이 내려졌거나, 자발적 출국 명령이 내려진 사람들을 (이민 구금 하에 있지 않는 한) 포함하여 고려 지침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민 구금 하에 있지 않으며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 요청서를 미국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최종 추방 명령이 내려졌거나, 자발적 출국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제출 당시에 15세 이상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케이스는 개별적으로 고려됩니다.

미국에서 잠시동안 우연하게 선의로 떠난 것은 연속 거주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 미국을 떠나 있었던 경우, 그것이 2012년 8월 15일 이전이었으며 또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부재는 잠시동안 우연하게 선의에 의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 단기간이었으며 부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합리적으로 계산되었으며,
- 입국금지, 추방 또는 출국 명령 때문이 아니었으며,
- 자발적 출국 명령 또는 입국 금지, 추방 또는 출국 절차에 처하기 전에 행정적 자발적 출국 허가 때문이 아니었으며, 그리고
- 목적 및/또는 미국 외에 있는 동안 요청자의 활동이 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절차 하에서 미국 이민국이 직권 재량을 행사하기 전에 요청자는 신상 및 생체인식 배경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요청자가 중죄, 중대한 경범죄, 같은 날 발생하지 않았고 같은 행동, 누락 또는 위법행위의 계획으로 부터 초래되지 않은 3회 이상의 기타 경범죄 판결을 받았거나 달리 국가 안보나 치안에 위협을 제기하는 경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가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청자의 I-821D 양식과 I-765양식이 접수된 후에, 미국 이민국은 해당 수수료, 최초 증거자료 및 증빙 서류 제출을 비롯하여 요청이 완전하게 제출 되었는지 검토합니다. 요청이 완전하다고 판단하면 미국이민국은 수령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그런 다음 미국 이민국은 생체인식 서비스를 위한 신청지원센터 방문 일정을 알리는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G-1145 양식인 신청/청원 수락에 대한 전자 통지를 작성함으로써 요청자의 양식이 수락되었음을 알리는 이메일 및/또는 문자 메시지를 받도록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은 개별적으로, 건별로 검토됩니다. 미국 이민국의 결정은 서면으로 요청자에게 통보됩니다. 미국 이민국은 추가 정보나 증거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고, 미국 이민국 사무소에 출두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의 거부를 재심사/재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상소나 발의는 없습니다.

수필

훈 밥



이명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원로목사

요사이 “훈밥”이라는 말이 언론에 많이 등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국빈 초대로 가서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공식 식사 대접이 달랑 2회에 불과하고 일국의 대통령이 일반 식당에 들러 보통 사람들 틈에서 친지 몇 사람과 “훈밥”(훈자 밥을 먹음)을 했다는 기사가 실리면서 “훈밥”이란 말이 유명세를 타는 것 같다.

“빨리빨리”라는 우리 민족성 탓인지 단어 하나도 길다고 약식 단어를 너무 많이 창작하는 요사이 젊은이들 속어를 이해하는 일은 떠난 지 수십 년이 되는 저 같은 해외 동포들에게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고향 떠나 사는 것도 서러운 일인데 모국어마저 자꾸만 난해해지니 더 따돌림 받는 느낌이어서 어수선했던 조국소식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 드는 것은 비록 나 혼자만은 아닐 것 같다. “훈밥”을 몰라 신문 기사를 읽고야 알게 됐다.

그런데 대통령이 겪은 “훈밥” 현상이 점점 늘어간다고 한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 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족과 함께 살아도 출근 시간이 다르고 직장 생활에 매여 “훈밥” 신세가 되는 경우, 이 글을 쓰는 필자처럼 아내가 딸 집에 가서 아이 돌보는 동안 무려 4개월이나 “훈밥”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던 경우, 아이 교육 때문에 혼자 생활해야 하는 기러기 아빠들의 “훈밥” 신세, 선교지에서 부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 어쩔 수 없이 “훈밥” 생활했던 경우, 더구나 직장을 잃은 아버지들이 돈벌이 못하는 꼴에 아이들 볼 면목도 없고 집에서 밥 타령만 할 수 없어 식당 외판 구석에서 값싼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작장 잃은 아버지들의 “훈밥” 신세, 그래서 “훈밥” 인구가 날이 갈수록 많아진다고 하니 어찌 서글프지 않으랴. 산업화 시대에 겪는 어쩌면 현대인들의 피할 수 없는 문화 현상이 아닌가 싶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훈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대중 속에 고독 현상은 밥 문화마저 바뀌야 하는가 보다.

원래 식사 문화는 각 민족들의 삶과 풍습이 압축되어 녹아진 가장 보편적이며 전통적 문화적 습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밥 문화에서 그 민족의 특성이 나타난다.

제가 경험한 중국은 집이나 특히 아파트의 부엌이 아주 작은 게 특성이다. 중국 선전과 쿤밍에 아파트를 사 꾸민 경험이 있는데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 부엌 수리였다. 부엌이 너무 작고

주로 대부분의 음식을 기름으로 튀겨먹기 때문에 기름으로 찌들어진 좁은 부엌을 고치지 아니하면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은 사용하는데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이런 작은 부엌을 두는 까닭이 있다. 적어도 1주일에 두, 세 번 이상 외식을 하는 습관 때문이다. 외식이 빈번하니 구태여 큰 부엌을 가질 필요가 없다. 손님을 초대해도 집에서 음식을 먹는 서구 사람들이나 생일이나 명절 아침에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 집에서 음식을 나누던 우리네의 풍속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직장이든 친구들이든 식당에 함께 모여 떠들며 식사하는 횡수가 집에서 가족끼리 식사하는 횡수보다 많은 것이 현재 중국인 대부분의 습관이다.

특히 우리는 이조시대의 특이한 유학 중심 예의범절 때문인지 할아버지와 3대 남자들끼리 밥을 먹는 식탁에서 말을 하는 것이 무례인 침묵 일관의 습관에 익숙하다. 단체로 외식하는 식당에서 옆 사람 상관하지 않고 떠들어대는 중국 풍습을 익히기는 좀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뜻글자인 중국말은 제한된 발음으로 수많은 글자를 말하다 보니 다른 뜻을 가진 같은 발음이 수 없이 많다. 그래서 소위 4성이라는 성조(엑센트)로 같은 발음을 다르게 표현해왔다. 그래서 부드럽게 말해서는 상대방에게 뜻을 잘못 전하는 수가 많다. 같은 발음을 성조가 섞인 된 발음을 하다보면 보통 말을 해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꼭 싸움하는 소리로 들리게 된다. 이 때문에 손님들로 가득 찬 식당에서 식사를 나누며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든 말든 크게 말하는 중국인들의 말을 들으면 시끄럽기 그지없는 것이다. 중국 식당은 정말 시끄럽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외식보다는 손님을 집에 초대해서 우리식으로 대접하였다. 조그만 정성이지만 자기자기한 자리가 손님에게도 대접하는 주인에게도 더 정다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부러운 것이 있었다. 중국인은 점심 식사 외에는 별로 “훈밥”하는 분이 없는 것을 본다. 그룹을 지어 되도록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각기 한 가지씩 다른 메뉴를 시켜 10

<18페이지로 계속>

관세 집행국에 회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예 조치는 직권 재량 행위로서 추방 조치를 유예하는 재량 결정일 뿐이며 요청자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위한 요청이 거부되는 경우, 미국 이민국은 미국이민 관세 집행국 (ICE)에 대한 케이스 회부 및 출두 통지 (NTA) 발급에 관한 이민국의 정책 지침을 적용할 것입니다. 요청자의 케이스가 형사 범죄, 사기 또는 국가 안보나 치안에 대한 위협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요청자의 케이스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추방 절차를 위해 이민

대박 낸 음악회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 새해에도 끊임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며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행했던 “은혜의 강물 따라 “ 음악회는 저에게 큰 은혜 뿐만이 아니라 큰 기쁨을 더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행사였습니다. 자화자찬도 잘하시네요 라고 평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음악회를 하면 좋겠다고 때를 썼기때문입니다. 아니 팔십이 된 할아버지가 어린애들 처럼 찡얼거리지는 않았고 제나름대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회에 참석했던 몇 분 들이 음악 행사가 끝난 다음 다과를 나누면서 그들의 느낌을 말해 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번 음악회가 너무 재미있게 잘 되어서 음악단을 초청해서 한 것이 아니었나 하고 극찬하기도 했고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음악이 좋았는지 좀 짧은 느낌이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교회는 좀 적는데 음악 소리는 아주 좋았다는 평입니다. 우리 교회 크기는 높이 20피트 넓이 32피트 길이가 48피트인데 구약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크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즉 45'x30'x60' 인데 그 당시는 음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우리교회 성전은 음향을 염두에 두고 내부 장식을 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제가 “ 광야의 소리 2017년 7-8월호 “에 언급했던 것처럼 음향효과가 잘 되도록 예배실 구조 나 강대 상위의 천장 panel을 좀 비싸지만, 특수 재료를 써서 음향효과가 좋도록 했던것이 실증되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흡족했습니다. 저는 로마합창단이 했던 음악회에 버금가는 노래를 불렀다고 느꼈습니다. 또 귀여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한 핸드 벨 연주는 참 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달 동안 힘껏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이번 음악회를 위해서 매 주일 예배 후에 세네 시간씩이나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했던 성가대원들과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곡 선정과 지휘 하시느라고 열정을 다해서 수고 하신 이태길 목사님과 영어 번역문들을 만들어 주신 그 가족분들, 또 함께 힘을 써 준 UNM 학생들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뿐이 아니라 여선교회 회원들과 남선교회 회원들이 정성스럽게 다과며 샌드위치,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김밥등을 만들어 주셔서 참석했던 모든 분이 행사가 끝난 후에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줄 압니다. 이번 음악회 때 찍은 사진을 보세요. 둘째 줄에서있는 여성대원들이 첫째 줄에 서 있는 대원들 사이 사이에 섰고 남성대원들이 또 사이 사이에 섰습니다. 참 보기 좋았다고 여기는 분들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목사님은

김준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장로



보기 좋으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음악적인 효과를 염두에 두고 배열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줄에 서 있는 분의 머리에서 뒤쪽으로 반사되는 반사파를 최소화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여성 대원 모두 20명, 남성들이 9명 이었는데 거의 2 대 1입니다. 그런데 소프라노와 앨토는

음역이 남성들보다 높기때문에 음향학적으로 감쇠가 많이 되고 테너와 베이스는 감쇠가 덜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잘 보완해서 정말로 완전 무결한 노래를 부를수 있었다고 봅니다. 남성4 중창을 불러 주신 이성빈 씨 (T1), 이철수 권사님 (T2), 이태길 목사님 (B1), 마이크 조 장로님 (B2)의 노래는 재미가 만점이었습니다.

“ 맛 좋은 냉면이 여기 있소 “ 라고 부르는 노래가락이 맨 뒤에 서서 들었던 저에게 아주 또렷하게 들을 수있었고 냉면을 부를 때의

화음은 들어보지 않고는 무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독창을 해 주셨던 박광종 집사님의 그 청아한 목소리는 어떤분의 질문처럼 판곳에서 초청한 분이 아니냐고 까지 해서 우리 권사가 자세히 설명도 해 드렸습니다. 특히 “ Time to say goodbye “ 노래는 2017년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의미 있는 노래였고 Sara Brightman 이 불렀던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교회의 Prima Donna 입니다. 합창 중에서 구수한 한국 냄새가 물신 나는 “섬집 아이 “는 제가 일사 후퇴 때에 용매도 섬에서 힘든 피난살이를 하면서 고향인 황해도 해주를 바라보며 지냈던 섬 생활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섬그늘에 굴 따라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 주는 자장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 저도 그 섬에서 조개도 잡고, 굴도 따고 낙지도 잡곤 했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청중들과 함께 불렀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영어로 부른 것도 아주 좋았습니다.

음악회를 마치고 나서 우리 감리사님 내외분, Rev. James Large와 Mrs. Large와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오른쪽 퓨 두번째 줄에 앉으셨는데 피아노 소리가 아주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지금이야말로 피아노 이야기를 할때다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교회 피나니스트 이신 박영신 집사님의 노련한 솜씨로 강약 중강약, 조금 느리게 또는 빠르게 등등 잘 연주를 해 주셨다는 말과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 때문에 삽니다

당신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내가 먹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내가 마시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내가 기뻐하는이유입니다.

당신이 내가 슬퍼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내가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내가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내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내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내가 일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내가 쉬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내가 죽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김용일(Benjamin Kim)

장로

Wagon Mound, NM

주님 때문에 삽니다 (I live because of You) 관련 성경 말씀

〈당신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14: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당신이 내가 먹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내가 마시는 이유입니다.〉

고린도 전서 10:31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당신이 내가 기뻐하는이유입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5:16

항상 기뻐하라

〈당신이 내가 슬퍼하는 이유입니다.〉

느헤미야 8:8-9a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당신이 내가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요한 1서 4: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당신이 내가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12:9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당신이 내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예레미야 29:12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당신이 내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당신이 내가 일하는 이유입니다.〉

골로새서 3: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당신이 내가 쉬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신이 내가 죽는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 14: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

피아노 현금을 했고 새 콘솔 피아노를 구입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피아노는 여름내내 한 달에 두번씩 물을 주어서 Sounding Board 가 말르지 않도록 했었다고 했더니 Mrs. Large 도 자기네 자녀가 첼로를 Play 하는데 역시 Sound board drying 문제 때문에 가끔 물을 주어야 해서 좀 귀찮았다고 해서 서로 우스며 그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독자들 중에 혹시 피아노나 첼로에 물을 주어야 한다는 이상한 ? 말들을 한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을줄 압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싸운드 보드는 그 나무 재료라든가 나무의 연윤, 나뭇결, 만든 후에

바르는 페인트 등이 Harmonic Production 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싸운딩 보드가 많이 마르면 Harmonics 들이 그 전에 내던 주파수에서 뒤틀러서 Pleasing sound 또는 Rich sound를 망쳐 버립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알기 때문에 Concert 가 있기 바로 전에 피아노 튜닝도 하고 물도 채워 줍니다. 우리 교회는 형재영 집사님과 박광중 집사님이 저희 피아노 물이 부족하지 않나 늘 체크 하곤 합니다.

또 감리사님 내외분이 여선교회 회원들이 만든 김밥을

<18페이지로 계속>

<훈밥 15페이지에서 계속>

사람이면 10가지 다른 음식을 돌려가며 나누어 먹고 떠들면서 그 낯의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특이하지만 좀 부러웠었다. 갈수록 “훈밥” 인구가 많아지는 한국이나 일본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찌 나 혼자만의 감정이라.

전문의이면서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로 있는 김철중씨가 “훈밥” 문제로 글을 썼다. “훈밥”이 얼마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일본의 연구 실례를 들어 설명한 글이다. 연구 결과를 보면 가족과 함께 살지만 밥을 혼자 먹는 사람과 혼자 살지만 밥만큼은 여럿이서 먹는 사람의 건강율이 크게 높다는 것이다. 혼자 살아도 밥만큼은 여럿이 같이 먹는 사람이 노쇠도 늦어지고 건강하며 가족과 함께 살아도 “훈밥”하는 사람보다 우울증 위험 확률이 6배나 적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다. 그의 기사를 보면 운동이 건강에 아주 좋지만 혼자 하는 “혼동(혼자 운동하는 것)”보다는 함께 같이 식사하는 “여럿밥”이 훨씬 더 건강에 유익하다고 했다. 흥미로운 것은 혼자 건강을 위해 운동만 하는 사람보다 함께 어울려 먹고 봉사하며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는 결론적으로 나이 들수록 건강을 위해 골방에 혼자 있지 말고 장터와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늙을수록 사람들과 더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사회학자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특히 목회하는 목사나 신부님들이 비교적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하는 연구 결과에 동의한다. 하나님이란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섬기는 일을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가르쳤다. 더구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현장 교육을 중시하셨던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좋아하셨다. 기독교의 핵심은 어떤 금욕적인 수도생활이나 거룩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다. 믿음 생활이란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생활이며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삶의 핵심이다.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정신과 육체 건강에 아주 효과적인 특효약이라는 것이 현대 의학의 연구 결과다.

예수님은 식사 때문에 때로는 오해와 멸시를 받으시기도 했다. 그런데도 함께 식사하기를 즐겨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월절 식사 문화를 예배로 바꾸신 것을 보면 밥 먹는 문제를 가벼이 보시지 않으신 것 같다. 그 만큼 식사는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이상으로 삶의 중심 활동이며 심지어 신앙의 핵심적 요소로 여기셨던 것 같다. “맛있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훈밥” 보다 “여럿밥”이 더 중요함을 친히 보여주셨다.

성찬식은 기독교 예배의 핵심적 부분이다. 케톨릭은 매 주일 예배가 성찬식이며 동방 정교는 성찬식이 예배 전부이고 장로교 감리교에서도 매월 1회, 적어도 1년에 수차례 일반 예배 가운데 드린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 유월절 식사 관습을 예배로 바꾸어 주신 것이다. 유월절 명절 시 먹던 떡과 포도주를 “십자가를 통한

<대박낸 음악회 17페이지에서 계속>

드시는 것을 보면서 김밥이 아주 영양가가 높은 음식이라고 설명해 드렸고 몇개 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김이 무엇이냐고 해서 주춤하고 있다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이 영어로 Sea weed 라고 부르는 한국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 번역 된것이고 저는 Sea Vegetable 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혹 미국 분들이 오해 할수 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그 많은 채소가 있는데 구태여 Sea Weed 까지 먹어야 할까 라고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Gim is not sea weed. It is Sea Vegetable. Right ?” 라고 해서 그 부인이 수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음악회때 못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분은 한번 저희 집에 와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들으며 그렇게 노래가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 노래 가사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잡아 갔던 이스라엘 포로들의 슬픔과 소망을 토대로 해서 만든 Giuseppe Verdi 의 오페라, Nabucco (느부갓네살의 이태리 이름) 3 악장에 나오는 합창입니다. 그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마음이 황금빛 날개로 언덕 위에 날아가 앓아라.
아름답고 정다운 내 고향, 산들바람 불어 주는 내 고향,
요단강물에 인사하고 시온 성벽에 입 맞추게, 오 내 조국, 빼앗긴 내 조국, 내마음속에 사무치네. 운명의 신의 하프 소리 그리운 가락을 들려다오. 마음속에 불타오는 추억 정답게 말해 주오.
구슬픈 운명의 소리 맞춰 비탄에 젖은 소리 지를 때 그대 위해 주님의 노래가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

저는 이합창을 들을때 마다 그분의 심취해서 들던 모습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분이 음악을 참 좋아 하신다고 생각되어서 다음에 또 음악회를 하면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하는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 오페라는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았던 당시 이탈리아 국민들의 처지를 잘 반영하는 노래로 알려져서 그 국민들의 애국심을 크게 북돋았다고 합니다. ■

언약”으로 바꾸어 무교병을 자신의 몸을 찢어 나누시는 음식으로 십자가에서 흘릴 피를 “새 언약의 피”로 제자들이 먹고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이후로 교회에서 성찬 시마다 한 몸과 피를 나눈 교인들은 믿음의 한 가족임을 깨달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찬을 예수님의 재림 시까지 교회가 지켜야 할 의무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후 함께 점심 식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식사 준비가 좀 힘들지만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일이며 함께 환담하고 교제하는 일은 교우들의 신앙과 정신 건강에 너무나 크게 기여하는 일이다. 더구나 성탄절, 연말 연시에는 모두가 어울려 함께 나누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 “훈밥”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하고 봉사하는 힘쓰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알버커키 한인회도 특별히 노인들을 위하여 수요일 점심을 마련하는 일에 여러 임원들이 많은 희생을 계속해 왔다. 어떤 노인은 이 날이 그렇게 기다려진다고 했다. 노인들 삶과 건강을

<19페이지로 계속>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류종재 목사 (505) 385-6545
 주일예배 시간: 오후 1:30 pm
 영어예배 시간: 오후 12:00 p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웹사이트: home.kcmusa.org/disciples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972)-822-1239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새벽예배및 기도회: 5:30am(mon-sat)
 금요일예배및 기도회: 7:30pm-10p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88005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 (626)272-1042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45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11:00 am (Sunday)
 수요일예배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30 am (Tue-Fri) 6:00 am (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사목회장
 이성희 요한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금요기도회(금,저녁)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클로비스 한인 순복음교회

이 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2:00pm 금요일예배: 7:30pm
 새벽기도회: 6:00am(월-금)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12:00 am (한국어) 1:00 pm (Indian 영어)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훈밥 18페이지에서 계속>

위해 얼마나 큰 공헌을 하는지 모른다. 늙을수록 약 많이 주는 것보다 함께 더불어 정을 나누며 식사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개인 플레이를 강조하는 현대 사회를 이기려면 모이기를 힘쓰고 봉사하며 더불어 사는 삶에 더 익숙해야 한다. “훈밥”은 문제인 대통령의 “국격”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젊은이들 할 것 없이 보통 사람의 “품격” 문제일 수 있다. 진수성찬이라 할지라도 “훈밥”이 어찌 아름다우랴. 더불어 살아야 행복한 것은 사회적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이며 행복의 비결이며 어쩌면 우리 서로서로가 함께 노력해서 이루어야 할 모두의 사명일 것이다.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등록을 원하시면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무료.

<p>알버커키 Albuquerque</p> <p>-----</p> <p>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p> <p>-----</p> <p>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275- 9021)</p> <p>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p> <p>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p> <p>-----</p> <p>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p> <p>-----</p> <p>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p> <p>Asian Pear 508 Central SW, ABQ (505)766-9405</p> <p>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p> <p>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p> <p>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p> <p>Jasmine Thai & Sushi House 4320 The 25 Way, NE Suite 300 (505-345-0960)</p> <p>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p> <p>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p> <p>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p> <p>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p>	<p>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p> <p>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p> <p>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p> <p>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p> <p>-----</p> <p>건축/페인트 Painting</p> <p>-----</p> <p>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p> <p>-----</p> <p>공인회계사 CPA</p> <p>-----</p> <p>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p> <p>-----</p> <p>리커스토어 Liquors</p> <p>-----</p> <p>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p> <p>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p> <p>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p> <p>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p> <p>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p> <p>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p> <p>Kelly Liquors #10</p>	<p>4312 Coors SW (505) 877-2777</p> <p>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p> <p>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p> <p>-----</p> <p>부동산 Realtors</p> <p>-----</p> <p>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p> <p>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p> <p>-----</p> <p>세탁소 Dry Cleaners</p> <p>-----</p> <p>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p> <p>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p> <p>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p> <p>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p> <p>-----</p> <p>의류 Clothes</p> <p>-----</p> <p>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p> <p>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9400)</p> <p>Dot Clothing Co 9601 Sage Rd. SW ABQ 87121 (505) 831-8812</p> <p>Fashion USA 201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55-0878)</p> <p>GEM X Imports</p>	<p>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p> <p>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p> <p>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p> <p>-----</p> <p>이발소 미장원 Hair Cut</p> <p>-----</p> <p>Salon 47(황경희 Kay Latham) 5850 Eubank Blvd., NE (505-225-4983)</p> <p>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47 (505-296-2335)</p> <p>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p> <p>Nob Hill Barber Shop (Sunny 박선희)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p> <p>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p> <p>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p> <p>-----</p> <p>자동차정비 Auto Repair</p> <p>-----</p> <p>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thegaragenm.com</p> <p>-----</p> <p>교회 Church</p> <p>-----</p> <p>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p> <p>갈릴리장로교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BQ, NM87112</p> <p>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p> <p>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p> <p>주님의 교회</p>	<p>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p> <p>-----</p> <p>주택융자 Loan Officer</p> <p>-----</p> <p>김미경 Mikyong Kim Bank of Albuq. Mortgage 3900 Vassar Dr. NE (Office 505-855-0586) (cell 505-379-2944) mkim@bokf.com</p> <p>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p> <p>-----</p> <p>치과 Dental Clinic</p> <p>-----</p> <p>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p> <p>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p> <p>-----</p> <p>태권도 TaeKwonDo</p> <p>-----</p> <p>Dynamic taekwondo acad-emy5850 Eubank blvd</p> <p>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p> <p>-----</p> <p>한의사 Acupuncture</p> <p>-----</p> <p>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p> <p>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p> <p>-----</p> <p>화랑 Gallery</p> <p>-----</p> <p>Park Fine Art Gallery (박영숙): 323 Romero St. Suite 6 Old Town, Albuquerque NM87104 (505-764-1900)</p> <p>-----</p> <p>화원/원예 Nursery</p>
--	--	---	--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등록을 원하시면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무료.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사진관 Photo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중재서비스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단요가 Dahn Yoga

알버커키 505-797-2211
커튼우드 505-792-5111
산타페 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 505-286-3535
www.dahnyoga.com

라스베가스 Las Vegas

치과 Dentist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

카페/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

교회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972) 822-1239

라스크루세스 장로교회:
200 E. Boutz rd, Las Cruces,
Las Cruces, NM 88001
전화: (915)329-3451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
556-0200)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츨: Los Alamos
(505-662-9681)

교회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626)272-1042)

리오란초 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
8855)

버나리요/벨렌/
보스키팜 /로스루나스
Bernalillo/Belen/Bosque
Farms/Los Lunas

식당 Chinese Restaurant

Bamboo Express
143 Highway 314 SW
Los Lunas NM87031
(505) 866 6888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

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

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

산타페 Santa Fe

손톱미용 Nails

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베이커리 Bakery

베이커리 B&B(양성권)
38 Burro Alley
Santa Fe, NM87501
(213)369-1604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

Kelly /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

Kelly Liquor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206

교회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626)272-1042

척추교정 Chiropractor

지압사 Joseph Cho
3600 Rodeo lane Suite D-2
Santa fe NM87507
712-259-2194

클로비스 Clovis

교회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

백화점 Mart

T-Mart
120 W 21st St.
Clovis, NM 88101
(575)218-3764

식당 Restaurant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화밍톤 Farmington

교회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
rington, Farmington (505-453-
5461)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광야의 소리는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voiceofnm
voiceofnm.kumcabq.com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18년 1/2월호

발행일 : 2018.1.7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위원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505)341-0205

광야의 소리 3-4월호 원고는 3월25일까지 받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독자 여러분의 좋은 글 또는 사진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 정치적인 글은 사양합니다.)

Merry
Christmas

가족, 지인들과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기를
김영신 부동산이 기원합니다.



HELLO FROM
ALBUQUERQUE
NEW MEXICO

- 편안하고 아늑하면서 가격 또한 적절한 집
- 상업용 건물에 투자하실 분



김영신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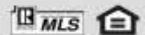
Associate Broker / REALTOR

Cell: (505)321-7695

Email: yongfre@yahoo.com • Office: (505)888-1700

6739 Academy Rd. NE, Suite 200, Albuquerque, NM 8710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w Mexico Properties



성심을 다하는
부동산 전문가
그레이스 김

Grace Kim
김 천

Associate Broker/Realtor



주택

토지

사업체

R1 REALTYONE
OF NEW MEXICO
THE FUTURE OF REAL ESTATE

전화: c 206.765.0836 o 505.883.9400

Email: kgrace7@msn.com

9674-3 Eagle Ranch Rd NW Albuquerque, NM87114

Website: www.realty1newmexico.com



앨버커키 지역
MetroPCS 딜러로 모십니다



MetroPCS는 미국내 최고의 가격 경쟁력과 폰 라인업을 갖춘 Pre-Pay Wireless회사입니다. Cricket와 비슷한 구조이나 초 고속 무제한 T-Mobile Network로 시장을 석권합니다. 달라스에서는 10년전부터 이미 많은 한인 분들이 성공적으로 가게를 운영하시고 전체 달라스 물량의 60%를 한인들이 소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분들이 새로운 Business에 참여하셔서 메트로 패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Dealer: 직접 새로운 Location을 찾으셔서 문의해주시거나 현재 운영중인 가게를 인수하셔도 됩니다.

연락처: JAMIE KIM

Tel: 505-401-9185

Email: jamie.kim@tomorrowtelecom.com